6. 제출하지 않은 답안지

懷卷而歸

권력이나 명예보다 가치를 중시하는 예술가의 정신은 무엇일까? 글씨에 몰두하여 초서로 독자적인 경지에 이른 최흥효의 짤막한 일화를 통해 예술가의 삶을 살펴보자.

崔興孝는 通國之善書者也라.

嘗赴擧하여 書卷할새 得一字하니 類王羲之라.



새로 배울 한자

*崔 **최** 성
捨 **사** 버리다
嘗 **상** 맛보다, 일찍이
懷 **회** 품다
赴 **부** 나아가다
謂 **위** 이르다
類 **류** 무리, 비슷하다
*羲 **희** 사람 이름

- 善의 쓰임을 알 수 있다.
- 글을 풀이하고 예술가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



坐視終日이라가 忍不能捨하여 懷卷而歸하니

是는 可謂得失不存於心耳라. "연암집"

읽고 풀이하기



崔興孝, 通國之善書者也.
온 잘하다

*崔興孝(최흥효): 고려말 조선 초기의 문신. 초서를 잘 써 이름을 날림.

嘗赴擧, 書卷, 得一字, 類王羲之.
일찍이 ~한 적이 있다 답안지 비슷하다

*王羲之(왕희지): 중국 동진(東晋) 때의 서예가. 행서와 초서로 유명함.

坐視終日, 忍不能捨, 懷卷而歸,
차마 ~하고

是, 可謂得失不存於心耳.
얻음과 잃음
~라고 이를 만하다 ~뿐이다

*通: ① 통하다 通信(통신)
② 통달하다 通達(통달)
③ **온, 전체** 通國(통국)

*善: ① 착하다 善行(선행)
② **잘하다** 善防(선방)
③ 좋다 最善(최선)

*嘗: ① 맛보다
② **일찍이**(예전에)

본문에 이어지는 이야기

이징이란 사람이 어릴 때 다락에 올라가 그림을 익히고 있었는데, 집에서 그가 있는 곳을 몰라서 사흘이 되어서야 마침내 찾아냈다. 아버지가 화가 나서 그를 때렸는데, 울면서도 눈물을 끌어다 새를 그렸다. 이쯤 되면 '그림에 온통 빠져서 영욕을 잊어 버렸다.'라고 이를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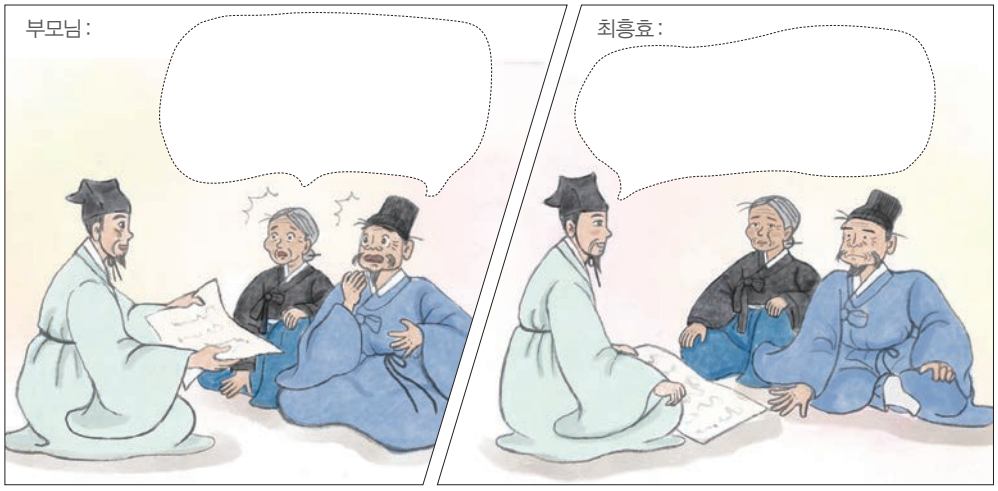
학산수는 온 나라 안에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다. 산에 들어가 노래를 익힐 때 매번 한 곡이 끝날 때마다 모래를 주워 나막신에 던져서 나막신이 가득 차야 돌아갔다. 한번은 산속에서 도적들을 만났는데 도적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바람을 따라 노래하니 여러 도적이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것은 이른바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 들어있지 않은 것이라 하겠다.

최흥효, 학산수, 이징은 기예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마저도 바꿀 수 있다고 여겨지니, 이것이 공자가 말한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것이라 할 것이다.

본문 내용 역할 놀이 학습

생각 넓히기

최흥효가 과거 시험에서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고 집에 돌아온 후 부모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자.



인문학 더하기

조선의 과거 제도와 시험 문제

조선의 과거 제도는 문과(文科), 무과(武科), 잡과(雜科)로 이루어졌다. 문과는 소과(小科)와 대과(大科)로 나뉜다. 소과는 생원과와 진사과가 있었다. 소과에 급제한 사람은 초급 관리가 되거나, 성균관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 소과 급제자도 정식으로 고급 관리로 선발되려면 반드시 대과를 보아야 했다. 대과의 초시와 복시를 통과한 33명은 임금 앞에서 전시(展試)를 치러서 등수를 결정했다. 역대 왕조별 시험 문제는 다음과 같았다.

- 인재를 등용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인재를 분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_세종 29년 문과 중시
- 우리나라는 중국과 외교 관계를 주도면밀하게 유지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사신의 직책을 다할 수 있겠는가? _중종 21년 문과
- 술의 폐단이 매우 심해졌다. 흉년이라 금주령을 내려도 민간에서 술을 빚어 곡식을 써 버리니 어떻게 해야겠는가? _중종 21년 문과
-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는 어떠하며, 문제점은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더불어 교육의 궁극 목적과 인재 양성 방법에 대해 견해를 밝혀 보라. _명종 13년 생원 회시
- 섣달 그믐밤의 서글픔, 그 까닭은 무엇인가? 세월이 흘러감을 탄식하는 데 대한 그대들의 생각을 듣고 싶다. _광해군 원년 증광 문과

이렇듯 과거 시험에서 왕들이 당시 주요 현안을 고민하고 선비들의 현명한 답을 구했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대개 사회가 마주하는 문제를 제시하였는데, 광해군의 인간적 감성이 밴 질문도 있어 눈길을 끈다.

※참고 도서: 『책문, 이 시대가 묻는다』(김태완, 현자의 마을, 2015)

어휘력 키우기



1 '手(扌)'가 들어간 한자

打 타 때리다 _ 打擊 타격
抗 항 막다 _ 對抗 대항
技 기 재주 _ 技巧 기교
搜 수 찾다 _ 搜索 수색
擴 확 넓히다 _ 打擊 타격
操 조 잡다 _ 操作 조작

2 모양이 비슷한 한자

卷 권 책 _ 卷末 권말
券 권 문서 _ 傍聽券 방청권
拳 권 주먹 _ 拳鬪 권투

書 서 책, 글 _ 書籍 서적
晝 주 낮 _ 晝夜 주야
畫 화 그림 _ 抽象畫 추상화
劃 획 긋다 _ 區劃 구획

懷 회 품다 _ 懷抱 회포
壞 괴 무너지다 _ 崩壞 붕괴
愧 괴 부끄럽다 _ 自愧 자괴
塊 괴 흙덩이 _ 金塊 금괴

3 한자의 활용

通 통 통하다 _ 通譯 통역 通稱 통칭
捨 사 버리다 _ 取捨 취사 喜捨 희사

새로 배울 한자

擊 **격** 치다
抗 **항** 막다
巧 **교** 공교하다
搜 **수** 찾다
索 **색** 찾다
擴 **확** 넓히다
張 **장** 베풀다
操 **조** 잡다
券 **권** 문서
拳 **권** 주먹
傍 **방** 곁
聽 **청** 듣다
鬪 **투** 싸우다
抽 **추** 뽑다
區 **구** 지경

확인하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崔興孝, 通國之㉠善書者也. 嘗赴擧, 書卷, 得一字, 類王羲之. ㉡坐視終日, 忍不能捨, 懷卷而歸, 是, 可謂得失不存於心耳.

1. ㉠과 쓰임이 같은 것은?

① 善行　② 善惡　③ 善防
④ 性善說　⑤ 眞善美

2. ㉡의 독음으로 옳은 것은?

① 좌시　② 주시　③ 좌선
④ 감시　⑤ 개선

3. '최흥효'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과거를 보러 갔다.　㉡ 예술에 열정적인 인물이다.
㉢ 귀한 책을 보면 꼭 빌려서 돌아왔다.　㉣ 왕희지 서체를 하루에 한 글자씩 따라 썼다.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劃 **획** 긋다　壞 **괴** 무너지다　愧 **괴** 부끄러워하다　塊 **괴** 흙덩이　崩 **붕** 무너지다
譯 **역** 통변하다　稱 **칭** 이르다